

농어촌공사 경남본부, 2025년 경남 농촌공간 정책 워크숍 개최

✎ 김순희 기자 | ⓒ 승인 2025.06.15 10:14

“살기 좋은 농촌,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어갈 것”

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이하 공사)는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, 공사 사업담당자 및 사업관계자가 참석하는 ‘2025년 경남 농촌공간정책 워크숍’을 개최했다.

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가 새로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시·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을 돕기 위해 개최됐다.

신규 정책을 다루는 만큼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공사 전문가, 선도지구 계획수립 전문가가 참여해 경남의 재구조화 기본계획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는 강의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.

강의의 주제는 ▲계획수립 방법▲선도지구 사례 ▲특화지구 지정에 관련된 내용과 주민참여형 계획▲공간계획 활성화방안 ▲대표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이해로 진행됐다.

저녁 만찬시간에는 공사에서 시행 중인 합천읍 농촌중심지사업의 동아리 난타 공연팀 '려천'의 공연 후 사업 관계자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.

한편, 공사는 경남 광역지원기관으로서 농식품부의 새로운 정책이 농업·농촌이 처한 난개발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농촌이 삶터·일터·쉼터로써 살기 좋고,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.



김순희 기자 true@newsgn.com